

다윗 이야기

⑫ 언약궤를 드디어 옮기다



나 레 이 선 다윗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었고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은 옷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다윗왕은 너무도 놀라 옮기는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.

다 윳 어째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?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?

나 레 이 선 다윗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율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

신 하 1 전하, 옷사가 죽은 이유를 알아냈습니다.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중 특히 언약궤는 레위 사람 중에도 고향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.

다 윳 우리가 이런 율법도 모른 채 그 귀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동물이 옮기도록 했던 거군요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무지하여 귀한 한 생명을 잃었던 것이요.

신 하 2 전하, 그럼 이제 레위 제사장들을 준비시켜 다시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기도록 명하여 주십시오.

나 레 이 선 다윗왕은 율법의 명령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도록 명하였습니다.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다윗왕은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.

다 윳 하나님의 궤가 이곳으로 오는구나!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임하시는구나!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으랴!! 하하하!!

나 레 이 선 다윗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뒤따랐습니다. 이때 다윗왕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.



다윗 오예!! 빠리빠라뽕!! 뽕!! 뽕!! 하하하! 주여~~! 주님이 오시는구나!
미갈 아니! 왕이시여 체면을 지키십시오!
한 나라의 왕께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디 그렇게 천박하게
춤을 추십니까?! 좀 진정하십시오!

다윗 이보시오~ 부인, 오늘 같이 기쁜 날.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는
영광의 날에 내 체면이 좀 구겨진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오.
나는 백성들 앞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오.
그분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 놀며 이보다 더 천하게
보일지라도 상관없다오! 하하하!



.....
나 레 이 션 다윗왕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
것이 너무 기뻐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. 그리고 다윗왕은
언약궤를 옮기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철저하게 순종해야
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.